

화학주가, 코스닥 상승률 높았다!

S-Oil 17.31%에 화인텍 110.33% ... 의약부문 코미팜도 80.85%

2005년 코스닥시장 업종 대표주의 성적이 유가증권시장 업종 대표주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.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, 코스닥시장의 19개 세부업종 대표주식(시가총액 1위)은 2005년 평균 141.67% 뛰었다.

특히, 의료정밀업종의 제넥셀(상승률 578%), 운수장비의 성우하이텍(411%), 비금속광물의 유진기업(285%), 음식료품의 매일유업(185%) 상승률이 매우 높았다.

반면, 유가증권시장 18개 업종 대표주의 평균 상승률은 39.11%에 그쳤다.

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계업종의 두산중공업(85%), 의료정밀의 삼성테크윈(77%), 건설의 대우건설(69%) 강세가 두드러졌다.

또 비교 가능한 16개 업종 중 기계와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14개 업종에서 코스닥의 대표주 상승률이 유가증권시장을 앞질렀다.

화학부문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의 S-Oil이 시가총액 8조8490억원으로 구가가 17.31% 상승에 머문 반면, 코스닥시장의 화인텍은 1650억원으로 무려 110.33% 폭등했다.

의약부문에서도 유가증권시장의 유한양행이 시가총액 1조745억원으로 주가가 52.87% 상승했으나 코스닥시장의 코미팜은 3402억원으로 80.85% 급등했다.

한편,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업종 대표주의 상승률은 각각 종합주가지수(29.72%)와 코스닥지수(51.08%)의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.

<화학저널 2005/10/25>